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, 김선희 조사.
오명옥(남, 1934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제보자] 아, 옛날 이야기 하나 잊져. 일로 한 이백미터 가면은 옛날 염뱃 해난 디가 있어.

[조사자] 소곰뱃마썸?

[제보자] 응 소곰뱃. 그기에다가 밤에 무슨 귀신새라고. 귀신이... 일주도로라면 이디도 염뱃, 이디도 염뱃인데 이렇게 상 잊어난댄 해여. 그게 구신이라고. 그런 구신이 나와났다. 경 행 이 밑으로 걸어가면은 걸어가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잊어났어.

[조사자] 거기 이름이 따로 잊수과?

[제보자] 거기는 소곰뱃, 소곰뱃 해낫주. 진새미골. 그 진새미골이엔 현 디가 비 오면은 물 내리는 골인데 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소곰뱃디 와.

- 핵심어 : 염뱃, 소곰뱃, 귀신새, 구신, 귀신, 진새미골